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11/24 월요일

아침의 누림

빌 4:5-6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빌 3:8-10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빌 1:3-7

3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5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6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7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 장 21 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선포한다. 이 말은 바울의 내적 실재에 대한 간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실질적인 표현은 무엇인가? 이 표현은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 열거된 미덕들로 나타난다. 같은 원리로, 2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제시한다. ... 이 본을 따라 사는 생활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 표현은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 나온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 관해 3 장에서 바울이 한 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철학을 유죄판결 하고 문화를 거절하며 종교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러한 사람의 생활에 어떤 표현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 그 표현은 4 장 5 절부터 9 절까지에서 볼 수 있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7, 296 쪽)

오늘의 위를 말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서 첫 번째 방면은 관용이다(빌 4:5). ... 두 번째 방면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에는 관용이 있지만 염려나 걱정은 없을 것이다. ...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조용하다. 반대로 혼란스러운 생활은 사탄을 사는 생활이다. 관용은 평온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것이다.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의 법적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인내와 온건함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다. 관용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할 말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인내와 온건함이 있을 것이며, 자극하거나 성나게 하는 것에 반응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무리의 자매들이 함께 산다고 하자. 가장 귀한 자매는 가장 관용이 많은 자매일 것이다. 어려움이 생길 때 그녀는 고요하며 조용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녀는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용이 부족한 자매들은 마음이 상할 때 쉽게 반응할 것이다. ...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한 생활이다.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인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과 대조된다. 관용은 또한 불평하는 것과 따지는 것과 반대된다. ... 우리에게 이기적인 야심, 헛된 영광,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이 있을 때마다 고요함과 평온함과 관용은 없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조용한 말 한마디라도 그것을 말할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알 것이다. 조용하게 하는 말이라 해도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되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관용을 발휘하여 조용한 말을 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 특히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말하는 방식을 주의하라. 주님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지 않는 편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소리 내어 부를 때 분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대신, 자신을 진정시키고 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말하라.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인간 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체험을 통과했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서 나는 아주 많은 다양한 환경들을 겪었다. 나는 가난을 경험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인간 생활의 모든 환경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체는 염려이다.

빌립보서 4 장 6 절에서 바울은 염려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그가 염려가 인간 생활의 총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또한 관용이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임을 깨달았다. ...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관용이 있고 염려가 없는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7, 297-299 쪽, 2 권, 메시지 60, 337-3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7, 2 권, 메시지 61

11/25 화요일

아침의 누림

빌 1:21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4:5

5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고후 12:7-9

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고후 6:1

1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고후 10:1

1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 비천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직접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 11:2

2 그분 위에 여호와와 영께서 머무시리니 곧 지혜와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웨스트(Wuest)는 그의 저서 <단어 연구(Word Studies)>에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부당한 대우에도 만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온당하게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 단어는 자제, 인내, 온화함, 친절, 관대를 포함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미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미덕도 베풀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형제가 부당한 대우에도 만족하고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어 아내를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관용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을 보일 것이다. 그의 관용은 인내, 겸손, 자제, 주님을 양망함,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적임을 인정하는 미덕을 포함할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6, 29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때로 우리가 부적절하게 처신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태도와 불친절한 말 또한 관용이 부족한 데서 온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관용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너그럽지 못할 수 있다. 심지어 말이 많은 것도 관용이 없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 ...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에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평안은 관용에서 나온다.

바울은 관용이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가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빌 4:5)라고 말한 이유이다. 이 관용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빌립보서 1 장 21 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살든지 죽든지 그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는 것이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자신의 관용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확대되시는 것은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관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지 모른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다. 우리에게 관용이 있다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열쇠는 관용이다. 거듭 말하지만, 관용은 관대나 겸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모두에서 우리는 관용이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다.

관용의 깊은 의미를 고려해 볼수록 우리는 왜 바울이 빌립보서 4 장 5 절에서 관용에 대해 말했는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의 실패와 패배는 우리에게 관용이 부족해서 일어난다.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든 성도들은 관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반드시 부당한 대우에도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까다롭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관용의 삶을 사셨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매우 엄격하셨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관대하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아주 많이 기도하셨지만, 기도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다.

관용에 대해 말하고 난 후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말한다. ... 체험에 따르면 ... 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강화한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도록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자주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 우리는 심지어 그분께서 실지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빌립보서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6, 298-3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6

11/26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20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 50:4-5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5 주 여호와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골 1:28

28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잠 25:15

15 관용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대하 1:10

10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출 33:14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관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 ‘합리적임, 사려 깊음, 적절함, 적응함’을 의미한다.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어떤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잘 조화되지는 못한다. 그들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겠지만, 어디를 가든 기쁘지 않다. 이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잘 조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관용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7, 30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관용은 또한 평화로움과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포함한다.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사려 깊으며 잘 조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의심할 바 없이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울 것이다. 또한 온유하고, 온건하며, 다른 이들에 대해 동정이 가득할 것이다. ... 관용의 반대는 매우 까다롭게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이다. 관용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엄격하게 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관용이 있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에도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법적 권리를 내세우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관용이다.

주 예수님의 생활은 관용을 보여 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그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던 두 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누가복음 24 장 15 절은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한다.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눅 24:17) 그들 중 한 명이 책망하는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24:18)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무슨 일입니까?" (24:19)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관해 말하면서, 그분을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에 능력 있으신 신언자'로 묘사했다. 이어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다. 주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일들을 제자들에게서 들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관용이였는가! 꽤 먼 길을 간 후에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24:28)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24:29) 주 예수님은 그들과 음식을 드시려고 상에 앉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분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24:31)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관용을 본다.

주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관용의 생활을 실행한 적이 없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연구해 보면, 참으로 관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 보면,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관용으로 충만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의 총체를 요약하는 데에 가장 좋은 단어는 '관용'이다. 우리의 관용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은 모든 인간 미덕들의 총체인 그리스도 자신이다.

빌립보서 4 장 5 절에서 바울은 ...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라고 말한다. ...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낀다. 그분은 공간적으로와 시간적으로 가까이 계신다.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우셔서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동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7, 310-312 쪽, 1 권, 메시지 27, 299-3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7-58

11/27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 9:6

6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는데 통치가 그분의 어깨 위에 놓였고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왕이라 불리리라.

사 30:15

15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요 14:27

27 내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남겨 둡니다. 곧 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요 16:33

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눅 7:50

50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롬 3:17

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롬 5:1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화평을 누립니다.

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15:13

13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롬 16:20

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 장 6 절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에 대해 말한다. 기도는 일반적인 것이며 경배와 교통이라는 본질을 포함한다. 간구는 특별한 것이며 특정한 필요와 관련된다. ... 우리는 매일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특별하게 간구할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 간구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모두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는 공과를 배웠다.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나를 책망하셨다. 병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가 아직 어느 정도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지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제가 완전히 건강하지는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호전되게 해 주시고, 다시 저를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배워야 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2, 358-3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4 장 6 절에서 바울은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한다. ...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한다.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빌 4:7). ...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빌립보서 4 장 6 절에서 ...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가리킨다. 주님의 축복 아래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나쁜 소식도 듣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라는 바울의 말은 쉽게 이해되는 것 같다. ... 나는 ‘하나님께’라는 어구를 연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로 번역될 수도 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는 ‘프로스(pros)’인데, 자주 ‘-와 함께’로 번역된다(요 1:1, 막 9:19, 고후 5:8, 고전 16:6, 요일 1:2).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의

교통을 함축한다. ... 우리는 그러한 교통, 그러한 연결과 교제 안에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령 우리에게 특별한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주님께 경배하고 그 분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그 분과 교통할 때, 우리는 그 분과 교제를 누리고 그 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행한다.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실행한 결과 혹은 산출물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빌 4:7).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신다. 혹은 보초를 서며 지키신다.

우리가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은 나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라는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안배로 인해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7, 301-303 쪽, 2 권, 메시지 60, 34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60, 62;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 권,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4 장

11/28 금요일

아침의 누림빌 4:8-9

8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9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들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딤후 3:8, 11

8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11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정중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딤후 2:2

2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권유하여 절제하고, 정중해지고, 신중해지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질 수 있게 하십시오.

롬 9:21

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 5:8, 16

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16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호 14:7

7 그 그늘 아래 앉은 이들이 돌아와 곡식같이 소생되고 포도나무같이 움 돋으리니 그 명성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라.

빌립보서 4 장 8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통제하는 여섯 가지 방면들을 제시한다. ...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과 관련하여 통제하는 방면들 중 첫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이다. 여기서 '참되며'는 '윤리적으로 진실하며'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사실 여부가 참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에는 거짓이나 거짓말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은 진실한 생활이다.

두 번째 방면은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이다. '장중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존경할 만하며, 존경할 가치가 있으며, 고상하며, 정중하며'(딤후 3:8, 11, 딤후 2:2)를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심을 갖게 하는 장중함을 내포한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고 고상하며 정중하고 견고하며 무게 있고 존귀한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8, 305-30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만이 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형제일지라도 장중함을 지녀야 하는데, 이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 장중함을 지니는 것은 중요한 사람인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참된 장중함을 지닐 것이다.

빌립보서 4 장 8 절에서 바울은 또한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리킨다.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라는 표현에서 '순수하며'라는 말은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으며'를 의미한다. 이렇게 순수한 것은 아무런 가식이 없는 것이다. 순수함 또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를 통제하는 한 방면이다.

그러한 생활과 관련하여 우리를 통제하는 또 하나의 방면은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이다. '사랑스러우며'라는 말은 '사랑할 만하며, 상냥하며, 애정을 느끼게 하며'를 뜻한다.

이어서 바울은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를 언급한다. 이것은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해야 하며, 매력이 있어야 하며, 마음을 끌어야 하며, 친절해야 하며'를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헬라어는 '좋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반드시 이 모든 방면들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는 거짓이나 느슨함이나 가벼움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의 생활은 장중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것이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 미덕들 가운데서 바울은 이 여섯 가지를 통제하는 방면으로 선정했다.

모든 인간 미덕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 우리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미덕들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릇이다. 그것은 마치 장갑이 손을 담기 위해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한다 (골 1:15, 고후 4:4).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지니도록

하나님에 의해 도안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된다.

빌립보서 4 장 8 절의 끝에서 바울은 그의 표현법을 바꾸어서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미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탁월한 것’, 즉 활기찬 행동 안에서 나타난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칭찬’은 미덕에 함께 수반되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의미한다.

미덕과 칭찬은 두 가지 추가적인 방면이 아니라 이미 언급된 여섯 방면의 평가이다. ‘미덕’은 특정한 방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용어이다. 진실함, 장중함, 순수함, 사랑스러움, 의로움, 평판이 좋음에는 미덕이 있다. 그 원칙은 칭찬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 여섯 가지 방면에는 모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은 얼마나 탁월한가! ... 이 탁월한 방면들 각각에는 어떤 미덕과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즉 그것들을 숙고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한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8, 307-31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8; 생명의 체험과 성장, 14-15, 28 장

11/29 토요일

아침의 누림

빌 4:11-13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 3:12-17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때, 그 일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주로 그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고기 굽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고기 굽는 비결을 배우지 않는다면 고기를 망칠 것이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빌립보서 4 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모를 수 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은 모를 수 있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우리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을 열 수 없다. ... 한편으로 바울은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빌 4:12)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13 절)라고 간증한다.

빌립보서 4 장 11 절에서 ‘만족하는 것을’이라는 어구는 ... ‘나는’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은 ‘어떤 처지에서든지’라는 표현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만족하는 것을’은 오히려 ‘배웠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9, 317-31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4 장 12 절에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풀어서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바울은 비결을 배웠을 뿐 아니라, 입문하여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웠다.

헬라인들 가운데에는 비밀 단체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한 단체의 회원이 되려면 그 단체의 초보적인 원칙들을 배워야 했다. ... 이 비유를 사용하여 바울은 교회가 다소 비밀하며,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 어떤 의미에서 교회생활 안으로 입문하였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다소 비밀한 것이지만 분명 비밀 단체는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언덕 위에 있는 빛나는 성이다. 더욱이 교회는 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교회에 비밀한 방면이 있기 때문에, 교회생활의 원칙들을 배우려면 영적인 입문이 필요하다.

교회생활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초보적인 원칙들은 알지 모르지만 교회생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우므로써 입문해야 한다. 몸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몸 안으로 입문한 사람으로서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생활 안으로 입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침례 받고 또 교파에 가입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바울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았다. 바울은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과 합당한 교회생활 안으로 입문하였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29, 318-3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59; 생명의 체험과 성장, 13 장

11/30 주일

아침의 누림

롬 10:8-13

8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9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1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합니다.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눅 24:15-19, 28-31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16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라고 하시자,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18 그들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일이나 말에 능력 있으신 신언자이셨습니다.

28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다.

29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저녁때가 다 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들어가셨다.

30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앉으셔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은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